



16일 오전 광주시 서구 양동 다목적센터에서 열린 '5·18 주먹밥 재현 행사'에 참석한 주민 등이 나눔과 연대의 상징인 5·18주먹밥을 만들고 있다. /김태규 기자

## ‘계엄군 총격’ 주남마을서 위령제

참가자들 “비극 치유·평화 기원”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총격으로 주민들이 학살당한 광주 동구 주남마을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기억이 니은이 축제’ 추진위원회는 16일 오전 주남마을 희생자 위령비와 마을회관 등에서 ‘제10회 기억이 니은이’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1980년 5월 민간인 집단 학살과 계엄군의 주둔으로 주남마을에서 벌어진 비극(주남마을 인근 양민 학살 사건)을 치유하고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임택 동구청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해 마을 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주남 마을회관에서 위령비까지 만장기 행진을 시작으로 ▲살풀이 공연 ▲민주·인권·평화 시 낭송 ▲치유·평화의 퍼포먼스 ▲희망의 인권 소리 담기 ▲인권 도자기 컵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주남마을의 치유·평화를 담은 울림을 널리 알렸다.

이철성 축제추진위원장은 “공수부대의 버스 총격 현상이었던 5·18 사적지 주남마을은 주민들과 함께 10년째 재능기부로 참여해주신 분들 덕분에 트라우마를 축제로 승화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후손들에게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고 주남마을의 미래를 꿈꿔 나갈 수 있는 뜻깊은 행사로 이어지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찬기 기자

# “굶주린 학생들 외면 못해” 다시 만드는 5·18 주먹밥

양동시장서 주먹밥 재현·나눔 기보니

80년 노점상인 십시일반 돈 모아 쌀 한 가마니 지어 시민군 나눔 오월정신 기리며 5년째 이어와 양동초 학생들 만들기 체험도

“먹고 살기 힘들고 총든 군인들이 무서워도 배고파 죽겠다는 학생들을 외면할 수가 없다. 갖 지은 밥이 뜨거운 줄도 모르고 맨손으로 봉쳐서 나눠줬어.”

5·18민주화운동 제43주년을 이틀 앞둔 16일 오전 11시께 광주 양동전통시장 북계상가 입구의 주먹밥 상점탑. 1980년 5월 항쟁 당시 주먹밥을 만들어 시민군에게 나눠줬던 양동시장 노점상들이 다시 모여 밥을 뭉쳤다.

상인들은 흰 쌀밥에 참기름과 소금간을 더해 정성껏 만든 주먹밥을 시민들과 나누면서 오월정신을 기렸다. 이날 주먹밥은 43년 전 주먹밥과 비슷하게 재현하기 위해 별다른 반찬 없이 쌀밥과 참기름, 소금으로만 만들어졌다. 양동주민자치위원회와 양동시장 노점상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계승·발전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5년째 주먹밥 나눔을 재현하고 있다.

행사가 시작되기 전 삼삼오오 모인 7명의 노점상들은 아직까지도 생생한 그날을 회상했다. 당시 마땅한 가게를 차리지 못해 노점에서 장사를 하면서 하루 하루 생계를 이어가던 이들은 계엄군에 의해 고립돼 굶주리는 학생들의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다.

굶주린 학생들을 먹이기 위해 30~40명의 노점상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고 쌀 한 가마니(80kg)를 사서 주먹밥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들은 계엄군의 눈을 피해서 쌀을 찌고 주먹밥을 뭉쳐 옛 전남도청과 전남대학교 등으로 향하는 시민군의 차량에 실었다.

오옥순씨는 “마땅한 가게 하나 없이 노점상을 하던 우리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돈이 있었겠냐”며 “자식같은 학생들이 배고파 죽겠다고 하니 ‘저들이 다 내 자식이다’고 생각하면서 주머니를 털탈 털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30~40명의 노점상이 500원, 1,000원씩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쌀 한 가마니를 샀다. 김이나 기름은 커녕 소금물도 없어서 그냥 맨밥

만 대충 뭉쳐서 나눠줬었다”며 “그런데도 부족하니까 공판장에 가서 ‘우리가 먹을 것 아니고 학생들 먹이려고 하는데 도와달라’면서 동냥하듯이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염길순씨는 계엄군의 위협으로 인해 겁에 질린 시민들을 찾아가 설득한 주인공이다. 염씨 덕분에 시장에서 100m 가량 떨어진 양동방앗간(현 양동행복복지센터)에서 계엄군의 눈을 피해 밥을 찌 주먹밥을 만들 수 있었다.

염씨는 “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시민들을 진압했고 주먹밥을 나눠주는 우리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방앗간도 처음에는 거절했었는데 수도 없이 사장님을 찾아가서 설득했다”며 “그때 함께 했던 노점상들이 세월이 많이 흐르면서 하나 둘 세상을 떠나 몇명 남지 않았다. 힘이 닿을 때까지는 주먹밥을 만들면서 그날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광주양동초 학생들도 노점상들과 함께 주먹밥을 만들면서 오월정신을 되새겼다. 학생들은 노점상 할머니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주먹밥을 만들었다.

임유나(11)양은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싸운 시민들에게 주먹밥을 나눠주셨던 분들을 직접 뵙고 주먹밥을 함께 만들어 뜻깊었다”며 “할머니들도 무서우셨을텐데 용기를 내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혜린 기자

## ‘간호법 거부권’ 광주지역 의료계 희비

의사회 “당연”·간호사회 “투쟁”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광주지역 의료계 지역 단체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의료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총파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반면, 간호사 단체는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정치적 심판과 법 제정 재추진을 선언했다.

광주시간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건의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했다”며 “약속을 파기한 대통령에게 우리는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밝혔다.

간호사회는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더 나은 간호와 돌봄을 누릴 권리를 박탈당한 5,000만 국민들께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분명히 알 권리가 있다”며 “이에 우리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며 간호법 제정

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을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며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간호법 제정안에 반발한 광주지역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의료연대는 지난 3일과 11일 두 차례 연가투쟁을 벌였고, 17일 강도 높은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박우환 광주시의회 회장은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결과로, 17일 총파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간호법 개정을 통해 단독개원의 근거가 마련될 경우 간호사의 단독 의료행위로 지역사회에 불법 사

## 5·18재단, 제주4·3 연대...서귀포에 오월결상

5·18기념재단은 제주 서귀포시에 제주 4·3과 광주 5·18의 연대를 위한 취지로 오월결상이 설치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되는 오월결상은 제주 4·3유족회가 참여해 ‘제주의 사할과 광주의 오월이 만나 함께 하다’라는 주제로 만들어졌다.

이번 오월결상은 서귀포시 오월결상위원회와 함께 준비했다. 제작식은 17일 열린다. 서귀포에 설치되는

오월 결상은 서귀포 시청사 인근에 위치했다.

제주 오월결상 제막식에는 이종우 서귀포시장과 김성훈 제주4·3유족회 서귀포시 지부회 회장, 강용훈 서귀포 오월결상위원회 위원장, 현성훈 고산성당 주임신부, 위성근 국회의원 등 지역 인사와 김희중 전 천주교 광주대교구 교구장, 홍세화 정발장은행장,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 인권연대측이 함께한다.

/민찬기 기자

(유)하우젠공조시스템  
Samsung System Air Conditioner

www.shsa.kr

**창립 특별할인 행사 20TH 삼성전자 B2B 호남매출 1위**

**삼성전자 시스템에어컨 & 가전 대량납품 전문회사**

**(유)하우젠공조시스템**

대형건물용 실링  
DVM S2

대형건물용 상외기  
DVM S2

대표이사 **신철우**

Certificate of Samsung Star Partner  
2022

서귀포점

**영업모집**

○ 정규직 2명 ○ 프리랜서 수시

※ 남녀 연령 무관 / 출퇴근 자율

www.shb2b.kr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소통로 54(용봉동) FAX. 062-515-7878 E-MAIL. shsa9999@daum.net TEL. 062-511-0006